

아시아 문화의 씨앗 불교미술 한눈에 본다

국립광주박물관 8월 2일까지 '인도·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그리고 티베트'전



부처의 머리
(2세기 파키스탄)

국립중앙박물관·화정박물관
개인 소장 등 120점 전시
10일 '인도의 불교미술' 강연



부처
(10세기 인도)



공양자
(3세기 파키스탄)

불교는 아시아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종교이자 문화의 씨앗이다. 기원전 6세기 오늘날 인도 동북부 일원에서 시작된 불교는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다.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서역 지방을 거쳐 동북아시아 일대로 전파됐고, 이후 동남아시아와 티베트, 내팔 등 히말라야 오지까지 확산됐다. 우리나라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파됐던 불교가 4세기경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백제를 통해 일본으로까지 전파됐다. 불교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500여 년 동안 아시아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부조리한 현실의 고난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삶과 깨달음을 위한 종교로 시작됐지만 점차 삶 속에 스며들어 정치·사상·문화·예술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오늘날 불교가 아시아인의 정신세계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종교이자 철학 사상, 문화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불교는 전파과정에서 지역의 사회·문화에 영향을 주고 순응하면서 스스로 변화해가는 등 토착화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아시아의 문화 허브가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아시아 불교 미술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에서 지난 2일 개막한 '아시아의 불교미술-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티베트'전에서는 불교를 주제로 한 조각, 회화, 공예 등 미술 작품을 통해 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과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동양



석가여래삼존과 16나한 (16~17세기 티베트)



주칠금채공양구 (19세기 미얀마)

미술 전문박물관인 화정박물관, 개인 소장가 소장품 등 모두 12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미술이 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꽃피웠는지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티베트 등 4부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간다라에서 출토된 부처의 머리를 비롯해 팔라왕조의 보살상 등 불교가 기원한 인도의 다양한 불교조각이 전시된다. 제2

부는 동남아시아의 불교조각·회화·공예품이 소개되는데, 특히 철기로 제작한 화려한 공양구와 경전·경상이 눈길을 끈다.

중앙아시아의 불교미술을 다룬 제3부에서는 오탁니(大谷) 탐험대에 의해 수집된 베제를리크 벽화의 모사도를 비롯해 점토제불상 등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제4부에서는 세밀한 묘사와 화려한 색채의 티베트 불화 탕카와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각종 범구로 티베트의 불교미술을 소개한다.

기원전 2세기부터 1세기까지 유행했던 헬레니즘 양식의 영향을 받은 4세기 아프가니스탄 핫타 지역의 '부처의 머리', 단정하면서도 엄숙한 인상에 인종 부위가 도통하게 강조된 간다라 불상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2세기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의 '부처의 머리'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 연계 강연으로 오는 10일 오후 4~6시에는 민병훈 전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의 '실크로드의 불교미술' 주제 강연이 열리고, 24일 같은 시간에는 이주형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의 '인도의 불교미술' 주제 강연이 이어진다.

조현중 관장은 "불교가 아시아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문화적 가치로 공유되며, 동시에 지역마다 독자적인 미의식으로 표출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예술 양식과 사유체계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8월2일까지다. 문의 062-570-70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섬.섬.섬'

'선을 위한 아다지오'

서양화가 정상섭 개인전
30일까지 광주 휴랑갤러리

자유롭게 춤을 추는 듯한 선은 경쾌하면서도 간결하고, 강렬하면서도 희미하다. 선 자체가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서로 맞물리면서 리듬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서양화가 정상섭 작가의 개인전이 광주 서구 휴랑갤러리에서 '선을 위한 아다지오'(Adagio for Drawing)를 주제로 열리고 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로, 다양한 선의 캐릭터를 통해 작가의 경험과 기억 속 이미지들을 묘사한 드로잉 20점과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소품 10점 등 모두 30점이 전시되고 있다.

음악에서 '천천히' '매우 느리게'를 뜻하는 '아다지오'라는 전시 주제처럼 다양한 선들을 활용해 차별하게 그려낸 작품들은 깊이 있는 울림을 준다.

종이 위를 오간 콘테는 두껍고 진한 느낌의 선을 만들기도 하고, 가늘면서도

열은 선을 표현하기도 했다. 절제된 선과 흑백의 강약으로 작품이 구성되면서 여백과 함께 압축적인 이미지가 강해져 드로잉 이상의 느낌을 선사한다.

작가는 드로잉 자체가 갖는 '빠름'이라는 의미보다는 차분하면서도 긴장감이 느껴지는 선을 화폭 위에 그었다. 특히 대부분의 선이 한 번의 움직임으로 완성돼 압축과 긴장감이 돋보인다. 너무 사실적이지 않으면서 작가 개인의 주관을 극대화한 추상적인 형상들도 이를 더한다. 영화 '플래툰'의 OST '현을 위한 아다지오'가 작품 속에 흐르는 듯한 느낌도 이 때문이다.

작가는 "드로잉에서 간결한 선만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은 같은듯하면서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조선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정작가는 그동안 20차례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청와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문의 062-360-339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극장 영화의 집'서 6일 플라멩코

지난 2월 개관 한 광주극장 영화의 집은 지금까지 감독과의 대화, 공연, 소모임,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모임 장소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영화의 집이 처음으로 플라멩코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6일 오후 2~7시까지 열리는 플라멩코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과 창작품 등을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다. 모두 20여개 팀이 참여,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며 교묘요람, AV밴드, 혼전순결 등 지역 음악인들의 공연도 이뤄진다. 공연은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전통문화관 '통과의례음식 체험' 참가자 모집

광주 전통문화관은 백일상, 돌상 등 의례 상차림 전통음식을 만드는 '사랑과 기쁨을 담은 통과의례음식 체험' 행사를 참가자 20명을 모집한다.

행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통문화관 전통음식체험전수실에서 진행된다. 남도의례음식장 이예선 선

생이 '백일상' 차리기 재현과 참가자들과 함께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백일떡' 등을 함께 만든다. 참가접수는 4일부터 18일까지 방문 및 전화 신청하면 된다. 체험비는 무료. 문의 062-232-150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